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10월 21일(월)

## 윤석열 대통령, 영국 외교장관 접견

-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불법 군사협력 관련 대응 방안 협의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21, 월) 「데이비드 라미(David Lammy)」 영국 외교 장관을 접견하고, 한-영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긴밀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작년 11월 국빈 방문 시 양국이 합의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따라 제반 분야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라미 장관은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영국이 지금 주요국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과는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 없을 만큼 양국 관계가 완벽하다고 하고, 신임 장관으로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라미 장관은 위조여권까지 제공하면서 북한의 파병을 끌어들이는 러시아의 무모한 불법행위가 유럽과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하고, 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협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영국 및 NATO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영국이 해군과 공군 분야의 방산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충해 나가자고 했고, 라미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또한, 라미 장관은 한국과 오커스(AUKUS) 간에 필라(Pillar) II 차원에서 첨단 국방기술 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과 라미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노력의 일환으로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개발협력을 AI(인공지능)를 포함한 첨단 기술 협력과 연계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끝>